

最近 朝鮮 研究의 業績과 그 再出發

[一] 朝鮮學은 어떠한 樹立할것인가

申南澈

(一) 朝鮮學 樹立에의 序言

(1)

極히最近에와서 「朝鮮學」이란 文句를 듣게 되었다. 一部 「國學者」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流行된지 벌써 오랫동안이지만 그것이 公然히 人口에 膾炙되게 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에 屬한다. 그러면 그 「朝鮮學」이란 것은 어떠한 意味內容을 가진 것이며, 또 當然히 가져야 할 것인가. 吾人의 問題는 그것을 解剖하고 扶出하여 그 科學的 構造를 整齊하는데에 잇을 것이다. 새로운 世代의 朝鮮에 對한 科學的 知識을 維持하려는 努力은 當然히 從來 거의 固□하고 觀念的인 方法에 依하여 研究되어 오는 朝鮮의 歷史的 文化에 對한 再吟味를 要求하여 마지않는다.

朝鮮學은 朝鮮의 歷史的 研究로부터 始作된다. 그런데 이 「歷史的」이라는 말은 在來의 朝鮮의 學者들사이에는 頗히 「非歷史的」인 確□하고 表面的인 考證과 年代記로써 理解되고 잇었다. 그러나 歷史的 研究의 眞正한 意味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科學的 必然性의 法則을 客觀的 發展의 속에 發見하여서써 諸形態의 交互關係를 組織하고 理解하는데 잇는 것이다. 나는 爲先 나의 當面한 問題에 들어가기 위하여 「歷史」라는 것의 枕念을 考察하여 보라한다.

(2)

歷史하는것은 普通二態의 意味에서 使用되고있다. 이것은 數□은 哲學者 歷史 研究家 等에 依하여 □□되고 잇는 事實이다. 그것은 一方으로 客觀的인 「生起한 事實그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他方으로는 「生起한 事實의 敘述」을 意味하고 있다. 우리가 □過 「歷史」라고 할 때는 이 같은 二□의 意

味에서 그 意味內□□ □□한다. 그리 하여 歷史를 □□하는 同時에 歷史□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歷史의 意味의 二□性は 決코 各其 樹立하여 考察됨을 不許한다. 歷史研究에 있어 서는 언제나 또 반듯이 「生起한 事實그것」으로서의 歷史가 歷史의 敘述에 先行하는것임은 勿論이다. 歷史敘述에 있어서 이 點은 出發點이고 □着點이다.

그러나 從來의 朝鮮 研究家들에게는 이러한 方法論的 自覺이 없었던 것은 勿論 「生起한 事實그것」으로서의 歷史의 發展에 對한 科學的 認識도 不足하였서다. 따라서 그들은 朝鮮의 歷史, 文化, 學說又是 民族을 觀念的으로 特殊化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朝鮮의 民族은 特殊한 傳統의 아들도 아니고 生物學的으로 進化해온 一般的이고 正常的인 人間이다. 그리 하여 그들이 動物로부터 區別되는 歷史는 그 內□的 規□에 依하여 條作지어진 生活史料의 生産에서부터 始作되었다. 그것이 歷史的으로 形成發達, 轉換하는 過程에 있어서 朝鮮의 政治史, 文化史도 그것과 關係的으로 展開되는것이다.」(白□□氏著 朝鮮 社會 經濟史)이 點은 眞實 歷史的 事實을 研究함에 있어 서의 根本的 命題이다. 이 命題에 依據한 歷史科學的 研究도 勿論 文獻的 研究를 等閑視하지는않는다. 歷史敘述의 基礎를 成하는 史料의 虛僞 또는 不確實의 □露 새로운 史料의 發見 特히 지금까지 使用된 史料와 矛盾되고 差異잇는 史料의 發見等等은 歷史敘述에 있어 서의 根本的 條作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 史料-文獻에 對한 批判的 選擇도 없이 그냥斷取할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史料金石 及 文獻 等은 가끔 「存在로서의 歷史」의 어떤一面만을 抽出하여 政策的으로 歪曲되어왔는것도 잇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朝鮮을 研究하여 그 □見없는 事實로서의 歷史를 文化史的으로 開明하게 하자면 (一) 歷史의 內面的 原動力으로서의 社會的 生産關係를 科學 法則에 立脚하여 把握할것 (二) 歷史敘述에잇어서의 基礎的 條件이 史料文獻의 選擇이 必要한것이다. 이 選擇이라는 것은 언제나 現代의 情況을 考慮하여 現代가 어떤 影響發展의 積□가 되게 된 歷史的 疑心을 基礎로 하여 現代를 超□한 新機因을 探索하는 要求를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經濟史, 政治史, 民俗史, 美術史, 文學史 等이 어떠한 現代의 情況과 關係하고잇는가를 보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이것은 必然的으로 (三) 歷史的 文化的 研究가 成就되려면은 一定한 「全體」가 慶景에 脫□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萬一 그러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眞正한 歷史的 研究와 敘述은 不可能하리라. 何故나하면 個個의 生起된 事實과 그 여러 가지의 階段은 全體의 속에서 又是 全體와의 關係에 있어서 考察될때 비로소 그 獨自性에 있어 서도 그 必然性에 있어 서도 □□될 것 이므로 이다.

以上の 歴史的 研究에 있어 서의 三大 重要 課題는 서로 連結하여 現在우 리에게 一大任務를 課題하고있다. 卽 지금까지의 朝鮮의 文藝 部門의 歷史는 새로운 現代의 意圖을 過하여 「다시 쓰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卽 흔히 우리가 우리의 앞에 주어진 歴史的 古典的 研究는 새로 一定한 全體的 關心 下에 다시 쓰이도록 研究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 卽 歷史 料學的 任務이다.